

웹툰으로 떠나는 광주 역사기행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00개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뽕뽕다리·칠석 고싸움 등 웹툰 50여편으로 재탄생



광주읍성 유허



뽕뽕다리



풍영정

광주시 동구 자산동 농장다리의 원래 명칭은 ‘동지교’다. 하지만, 광주사람들 가운데 동지교라는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밖에 착한 며느리가 만들어낸 효도음식인 ‘송정리 떡갈비’, 해 뜨는 시장 ‘남광주 역전 시장’, 광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공원, 광주의 제1호 공원인 ‘광주공원’, 가을이 오면 용전들녘에 울려퍼지던 ‘용전들 노래’ 등 광주 지역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물 속에서 뽑은 100개의 이야기를 담은 홈페이지가 생겨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광주의 역사문화자원과 이야기들을 모은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www.gistory.or.kr)를 개설했다.

50여 편의 웹툰과 100개의 이야기, 1000개의 광주역사문화자원을 담고 있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는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휴대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지역문화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며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우선 광주지역의

1000여 개의 역사문화자원을 선정했다. 연구팀이 영역과 항목을 나누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초목록 1300여 가지를 발굴한 후 자문화의를 거쳐 최종 1000여 개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100가지의 스토리텔링을 시도했다. 먼저, 연구팀이 1000여 개의 자원 중 120가지의 목록을 선정해 스토리텔링 작가들로 하여금 최종 100가지를 창작하도록 했다. 그 결과물이 ‘광주역사문화자원 100’ 상·하권이며, ‘광주역사문화지도’, ‘광주건축문화유산지도’ 2종이다. 자연과 인물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담았다. 웹툰은 ▲지리(무등산, 부동교, 산동교, 뽕뽕다리 등 15편) ▲문화유산(정지장군 갑옷, 칠석 고싸움 놀이 등 14편) ▲성씨인물(필문 이선제, 무돌길, 자미탄 등 12편) ▲경제사회(임을 위한 행진곡, 어등산 한말의 병 등 5편) ▲종교복지(제중병원, 증심사 2편) ▲설화문화(유서석록, 경양방축의 전설 2편) 등 총 50편이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주제와 스토리를 짧막하게 정리한 웹툰은 지난해 8월부터 제작하기 시작해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웹툰 ‘뽕뽕다리’를 보면 뽕뽕다리는 구

멍이 뽕뽕 뿔러있어서 뽕뽕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멍 사이로 고무신을 떨어뜨려 우는 아이가 많았다는 사실도 담겨있다. 또, 맛있는 들판이라고 해서 이름지어진 ‘맛잇들’은 방립2동의 옛 지명으로 방립동과 학동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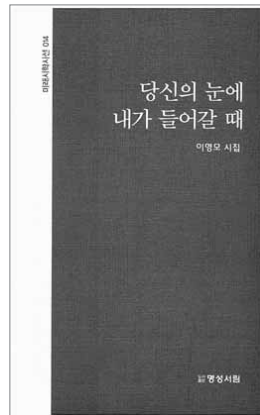
홈페이지는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웹툰을 서로 연동시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역사문화지도 보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 주제와 연관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삶과 삶터에 새겨진 이야기의 광맥을 찾아가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가 후원했다.

한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집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광주 이야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툰, 영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문의 062-234-272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시를 쓰는 것, 살아 있다는 생생한 증거”

이영모 시집 ‘당신의 눈에 내가 들어갈 때’ 발간



“생각지 못한 사고로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몇 차례의 수술을 끝내고 나는 결국 좌측 손가락 모두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 순간에 일어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

는 사고였다.”

시를 쓰는 행위가 살아 있다는 생생한 증거로 느끼는 시인이 있다. 그는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영모 시인의 신작 시집 ‘당신의 눈에 내가 들어갈 때’(명성서림·사진)는 살아가면서 겪은 시난고난한 고통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시인의 의지가 간결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1994년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은 짧은 시절 당한 사고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다. 시인은 그 시절을 “글을 쓰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으면 못살

것 같은 때”였다고 회상한다.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길’, 제2부 ‘바람’, 제3부 ‘문’, 제4부 ‘약속’으로 이루어진 시집에는 간략한 키워드만큼이나 살아온 인생이 압축적으로 집약돼 있다. 잔잔한 어조로 읊조리는 화자의 음성에는 진한 여운과 물기가 묻어 있다.

“사는 것은 가슴을 흔드는 일이야/ 한 친구가 바닥에/ 단단한 철근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 골조를 세운다.// 그래/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일/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 모두가 아파하며/ 집을 짓는 일이다”(‘문’2-집짓기)

‘문’2라는 작품에는 삶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하며 집을 짓는 일”이 바로 인식에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긍정을 잃지 않으려는 시인의 담담한 심사가 읽혀진다.

한편으로 시집 전면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순전한 의식도 깔려 있다. 한파디로 아픔을 이겨내는 자만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영모 시인은 2016년 계간 미래시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미래시학 호남본부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종삼 시인 탄생 97주년 ‘일지암 캠프’

2월3일 해남 대항사



임동화 시인

시집 ‘북치는 소년’으로 유명한 김종삼(1921~1984) 시인은 한국 순수시의 지평을 넓힌 문인이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을 담은 서정으로 풀어냈다. ‘여백의 시’로 일컫는 그의 시는 비어 있는 세계를 토대로 새로운 미의 창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삼 시인 탄생 97주년을 기념하는 ‘종삼음악회 일지암 캠프’가 2월 3일 해남 대항사에서 열린다.

종삼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부는 종삼음악회가 펼쳐지고 2부는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

를 때’를 펴낸 임동화 시인이 나서 오월 광주와 사월 세월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임동화 시인은 1987년 광주 민중항쟁의 비극을 담은 ‘매장시편’ 출간 30년만에 펴낸 이번 시집에서 새롭게 전개된 사회

적 지형과 상상력 등 변화된 환경에 맞서는 자세와 방식을 보여줄 계획이다.

문의 010-3386-7992, 010-6295-806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벤야민의 철학 읽기 ‘검은 책방 흰 책방’ 모임

동네 서점 ‘검은 책방 흰 책방’이 ‘발터 벤야민 읽기 모임’을 진행중이다.

30일부터 수잔 벅스의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함께 읽으며 이후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와 ‘독일 비애극의 원천’을 읽을 예정이다.

책 읽기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에 진행하며 벤야민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

‘검은 책방 흰 책방’은 프루스트 읽기를 마무리하는 등 다양한 책 읽기 모임을 진행중이며 ‘벤야민 읽기 모임’은 지난 9월 처음 시작됐다. 문의 010-7608-98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